

《삼국지연의》 번역과 서양으로의 전파*

— 피터 페링 톰스의 번역을 중심으로 —

김 소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2. 생략 |
| II. 톰스의 생애와 번역 성취 | 3. 오역 |
| III. 톰스의 《삼국지연의》 번역 | IV. 나오며 |
| 1. 추가 서술의 삽입 | |

I. 들어가며

본고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서양으로의 전파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최초의 영어 번역인 피터 페링 톰스(Peter Perring Thoms, 1790~1855)의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1820년에서 1821년까지 톰스는 《아시아 저널(The Asiatic Journal)》 10권 12월호와 11권 2월호, 3월호에 3회에 걸쳐 〈뛰어난 승상 동탁의 죽음(The Death of the Celebrated Minister Tung-cho)〉을 연재했다. 이는 《삼국지연의》 제8회에서 제9회에 서술된 동탁(董卓)고사로, 톰스의 번역이 나온 이후로 4종의 영역본이 더 나올 만큼 서양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중국학과 쥘리앵(Stanislas Julien, 1799~1873)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4652).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에게 번역 동기를 불러일으켜 프랑스어로 번역된 <동탁의 죽음(La Mort de Tong-tcho)>¹⁾이 출간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삼국지연의》는 1925년 브리워트-타일러(C. H. Brewitt-Taylor, 1857~1938)가 번역한 완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19세기 동안은 잡지 혹은 중국학입문서에 발췌역으로 게재되는 방식으로 서양에 전파되었는데, 이러한 전파방식의 서막을 연 것이 바로 톰스의 번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톰스 번역 이후로 나온 19세기의 《삼국지연의》 발췌역들은 대부분 영웅의 비극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²⁾, 《삼국지연의》 서양전파사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서양의 비극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톰스의 동탁고사 번역은 개인영웅주의와 비극적 결말을 서술한 회목(回目)의 번역 붐을 이끈 선두 주자였다.

본고는 톰스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의 번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래 번역은 원문텍스트의 파생물이라는 점에서 종속적이고, 또 번역가가 원문텍스트를 이해해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적 특징을 갖는 번역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상세하게 대조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II. 톰스의 생애와 번역 성취

톰스는 영국 남서부 국제항구도시 엑서터(Exeter)의 의자제조공 가정에

-
- 1) Stanislas Julien(trad. par), *Tchao-Chi-Kou-Eul: Ou L'Orphelin De La Chine*, Paris: Moutardier, Libraire-Éditeur, 1834, 141-192쪽.
 - 2) 1834년 데이비스(J. F. Davis, 1795~1890)가 외척 하진(何進)의 몰락 과정을 번역한 <하진의 운명과 역사—환관들의 음모(History and Fate of Ho-tsin—intrigues of the eunuchs)>, 1862년 알렉산더(G. G. Alexander, 1821~1879)가 사도(司徒) 왕윤(王允)의 비극적 결말을 번역한 <왕윤의 운명(The Fate of Wong-Wan)>, 브레워트-타일러가 1889년 번역한 <손책(孫策)의 죽음(The Death of the Sun-Tse)> 등이 그것이다.

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인쇄업의 중심지 런던으로 가서 인쇄술을 배웠다. 톰스는 런던에서 우수한 인쇄공으로 성장하여, 영국동인도회사의 문헌관리 책임자였던 찰스 윌킨스(Charles Wilkins, 1749~1836)의 추천을 받아 중국으로 파견되었다. 1814년 9월 25세의 나이로 마카오에 도착한 그는 중국에 온지 반년 만에 영국동인도회사 마카오인쇄소에서 최초로 중문연합 금활자를 만들어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의 《화영자전(華英字典, The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제1권을 1815년에 출간하였다. 영국동인도회사가 자금을 대고 모리슨이 추진한 《화영자전》은 1815년부터 1823년까지 8년에 걸쳐 총 6권으로 출간되었고, 이 기념비적인 사전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톰스는 중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다. 사전 출판이라는 임무를 띠고 중국에 왔던 그는 약 11년간 중국에 머무는 동안 인쇄 작업 외에도, 중국문화를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중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1825년 36세 때 런던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워릭 스퀘어(Warwick Square)에서 인쇄소를 차렸고,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앞장섰으며 중국에 대한 연구와 집필활동도 꾸준히 하여 재야의 중국학자로서 성취를 거두었다.

그 당시 영국동인도회사에 소속된 엘리트 번역가들과는 달리, 하층노동자계층 출신이었던 톰스는 중국문화와 중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가 중국에 온지 처음 3년 동안은 인쇄 작업일로 중국인들과 매일 접촉했다. 인쇄기술을 지닌 중국인들과의 집중적인 협업 작업과 퇴근 후 독학으로 중국어 공부에 매진한 노력 덕분에 그는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단기간에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영국인의 시선이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에세이를 써서 잡지에 게재하였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 《웨스트민스터 리뷰(Westminster Review)》에 게재한 〈중국〉이라는 글에서 “중국인은 모든 면에서 유럽인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열등하다는 생각”이 영국사회에 지배적이라고 그는 개탄했다. 이어서 “영국인의 중국 관

습에 대한 무지는 중국인의 영국 관습에 대한 이해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영국인들은 영국과 엄청난 무역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언어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³⁾ 뿐만 아니라, 톰스는 선교사 머드허스트(W. H. Medhurst, 1796~1857)가 ‘이(夷)’자를 ‘외국인(foreigner)’이 아닌 ‘야만인(barbarian)’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양국 간의 긴장국면을 조성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글자에는 본래 멸시적이거나 공격적인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⁴⁾ 전쟁 찬성론자들이 고의적으로 ‘夷’를 ‘barbarian’으로 번역함으로써 중국과의 불화만 키운데 대해 그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아편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적의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톰스는 유럽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열린 태도를 지닌 그 당시 보기 드문 성실한 중국연구자였다.

중국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톰스가 최초로 번역한 중국문학은 《다정한 한 쌍, 송금의 이야기(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로, 《금고기관(今古奇觀)》에 수록된 〈송금량이 해진 도롱이로 아내와 다시 만나다(宋金朗團圓破氈笠)〉를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은 영국동인도회사 본부가 위치해있던 런던 리든홀 스트리트(Leadenhall Street)의 킹스버리 앤 컴퍼니(Kingsbury & Co.) 출판사에서 1820년에 단행본으로 나왔다. 《다정한 한 쌍》은 바쁘고 고된 인쇄업무 와중에도 톰스가 시간을 내어 번역해낸 값진 성과물로 그의 근면함의 징표라고 칭송받았다.⁵⁾ 이 번역에 딸린 톰스의 서문이 181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다정한 한 쌍》의 번역은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3) Peter Perring Thoms, “China: Its Early History, Literature, and Language ; Mistranslation of Chinese Official Documents; Causes of the Present War”, *Westminster Review* vol.34 June-September, 1840, 281쪽.

4) Peter Perring Thoms, *The Emperor Of China V. The Queen Of England*, London: Published by P. P. Thoms, 1853. 64쪽.

5) Peter Perring Thoms(trans. by), “Review of Books ;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The Asiatic Journal* vol.13 May, 1822, 565쪽.

므로 그는 중국에 온지 불과 4년 만에 백화단편소설을 번역할 만큼 빠른 속도로 탄탄한 중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번역가 서문에 따르면, 이 고사는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인들의 풍속과 관습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힐 수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인 불교의 종교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인들도 자비, 동정, 사랑과 같은 순수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톰스는 원문을 존중하는 자세로 삽입시까지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번역했다. 이 번역은 단행본이 나온 2년 뒤인 1822년에 《아시아 저널》의 ‘북 리뷰’ 섹션에 다시 실려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827년 프랑스의 중국학자 아벨 레뮈자(Abel-Rémusat, 1788~1832)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상냥한 배우자(Les Tendres Époux)>를 세상에 내놓는데 영향을 끼쳤다.⁶⁾

톰스가 번역한 중국문학 가운데 가장 공들인 작품은 《화전기(花箋記, Chinese Courtship)》였다. 1823년 사전 출판이 완료된 후 영국동인도회사의 출판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톰스는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톰스는 한영대조본 형식으로 편집한 《화전기》를 출간하기 위해 1년 남짓 중국에 더 머무를 정도로 정성과 열의를 보였다. 광동어로 된 목어서(木魚書) 《화전기》에 대한 톰스의 번역은 원전에 대한 미학적 충실성을 고수하면서 이국화(foreignization) 번역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국의 젊은 연인들의 시적 로망스를 성공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⁷⁾ 그의 번역은 그 당시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중국사회와 관습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문학에 접근했던 차원에서 벗어나 중국의 통속적 시문학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화전기》 번역본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제일 마지막 쪽에 적힌 《삼국지연의》 번역본 출간에 대한 광고문구이다.

6) Abel-Rémusat(trad. par), *Contes Chinois*, Paris: Moutardier, 1827에 수록.

7) K. C. Leung, “Chinese Courtship: The Huajian ji in English Translation”, *Chinoperl Papers* 20-22, 1997~1999, 288쪽.

이는 톰스가 《삼국지연의》를 번역하게 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세 나라로 나누어졌던 시기의 중국 역사로, 《삼국지》에서 번역했으며 《자치통감》과 대조하였다. 영제(靈帝)가 제위에 즉위한 때부터 삼국의 몰락, 즉 진(晉)나라가 제국을 점령했을 때까지 중국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풍속과 관습에 관해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공식 문서에 근거하여 전투와 정치적 음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8절판 2권.”⁸⁾

위 출판광고에 근거해보면, 톰스는 영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저 먼 대륙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국지연의》 번역을 출간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완역본은 출간되지 못했다. 아마도 영국으로 돌아간 뒤, 출판 환경이 바뀌므로 인해 그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완역본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는 이후 1830년에 조식에 관한 글을 발표함으로써 삼국영웅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조자건 전기(Biography of Tsaou-Tsze-Këen)> 역시 《아시아 저널》에 실렸으며, 조자건(曹子建)의 문학재능과 조조(曹操) 사후 형 조비(曹丕)의 꾀박을 받아 불우했던 후반기의 삶을 조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톰스는 조자건이 쓴 《구자시표(求自試表)》의 일부를 인용하여 번역했는데, 톰스는 《구자시표》를 조자건이 형 조비에게 올린 글로 오인하는 실수를 범했다.⁹⁾ 사실 《구자시표》는 조비 사후 그의 아들 조예(曹叡)가 통치하던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결의를 밝힌 글이었는데, 톰스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8) Peter Perring Thoms(trans. by), *Chinese Courtship*, Macao: East India Company's Press, 1824, 340쪽.

9) Peter Perring Thoms, “Biography of Tsaou-Tsze-Këen”, *The Asiatic Journal* new series vol.3, 1830, 72-75쪽.

Ⅲ. 톰스의 《삼국지연의》 번역

톰스의 동탁고사 번역을 연재한 《아시아 저널》은 영국동인도회사의 후원을 받아 인도 및 동인도회사 관련 정보를 영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1816년에 창간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상업, 정치, 문화 방면의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톰스의 번역이 《아시아 저널》의 레이아웃에서 제일 앞에 위치한 “원본 통신(Original Communications)” 섹션에 수록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편집진들이 그의 번역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톰스의 번역은 조정 백관들이 동탁의 폭정에 시달리던 때 사도 왕윤이 초선(貂蟬)을 이용한 미인계를 써서 여포(呂布)로 하여금 동탁을 암살하게 하고, 이후 왕윤이 안타깝게도 동탁의 부하 이각(李傕)과 곽사(郭汜)의 손에 죽는 이야기가 서술된 《삼국지연의》의 제8회에서 제9회에 해당한다. 톰스가 방대한 《삼국지연의》 중에서 어째서 이 부분을 골라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다만 추측컨대, 그의 번역에는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집필한 편년체 역사서 《자치통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화전기》에 적힌 광고문구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톰스는 《자치통감》을 참조해서 《삼국지연의》를 번역했는데, 동탁고사는 바로 《자치통감》 권60 헌제초평3년(192년) 부분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톰스는 제8회 첫 단락을 빼고 동탁이 등장하는 두 번째 단락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제9회 역시 끝부분을 빼고 왕윤의 사망까지만 번역했다. 공교롭게도 이는 《자치통감》의 동탁고사 기록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또, 번역문 제일 마지막 쪽에서 톰스는 주석을 달아 동탁이 몰락한 년도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직접 《자치통감》을 참조하여 한 나라 말기 영제의 사망부터 동탁의 낙양 입성과 피살, 여포의 남양으로의 도주, 이각 일파의 세력 장악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년도를 모두 제공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톰스의 번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번역문의 출처인 《삼국지연의》를 소설이 아닌 역사서로 오인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그는 진수(陳壽, 233~297)가 쓴 정사(正史) 《삼국지》의 존재를 몰랐으며, 《삼국지연의》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허구적으로 각색한 소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번역저본에 관해, 중국의 내전을 다룬 가장 뛰어난 중국 역사이자 삼국 시기의 전쟁과 재난에 대한 방대하고 정확한 서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삼국지(the San-kwo-che)》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저본을 《삼국지연의》가 아닌 《삼국지》라고 밝힌 것은 그가 번역저본으로 사용했던 중국원본 제목이 ‘삼국지(三國誌)’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⁰⁾

명말청초 소설비평가 김성탄(金聖歎, 1610~1661)이 쓴 《삼국지연의》의 서문을 번역한 톰스의 글을 보면, 이 텍스트가 소설로서 갖는 특징을 톰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성탄 서문] 或曰：凡自周秦而上，漢唐而下，依史以演義者，無不與三國相仿，何獨奇乎三國？… 而演三國者，又古今爲小說之一大奇手也。¹¹⁾ (혹자는 말한다, 무릇 위로는 주나라와 진나라부터 아래로는 한나라와 당나라까지 역사에 의거하여 그 뜻을 풀어서 쓴 것 중에 《삼국지》에 비견될 만한 것은 없다. 어찌하여 《삼국지》가 유독 특출한가? … 《삼국지》를 풀어서 쓴 사람은 고금의 소설을 쓴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톰스 번역] But since all history, from Tsin and Chow upward and from Han and Tang downward, is bottomed in the Standard History of China, why, it may be asked, is the History of the San-kwo entitled to peculiar admiration? … the historian of those wars, when compared with

10) 溫州대학 易永誼 교수에 따르면 톰스가 활용한 번역저본은 《관화당제일재자서삼국지(貫華堂第一才子書三國誌)》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므로 향후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易永誼, 〈野蠻的修辭: 作爲譯者的漢學家湯姆斯〉, 《中國比較文學》第103期, 2016, 104쪽.

11) 羅貫中 撰, 毛宗崗 批, 饒彬 校訂, 《三國演義》, 臺北: 三民書局, 1997, 1쪽.

all other historians, whether ancient or modern, is an author of unrivalled merit.¹²⁾ (위로는 진나라와 주나라부터, 아래로는 한나라와 당나라까지 모든 역사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근거하고 있다. 왜 《삼국지》가 특별한 찬사를 받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 그 전쟁을 쓴 역사가는 고대나 현대의 다른 모든 역사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길 데 없는 장점을 지닌 작가이다.)

김성탄은 역사서에 의거하여 백화문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연의소설 가운데 《삼국지연의》가 왜 특출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소설 《삼국지연의》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톰스의 번역문에는 김성탄 서문의 “依史以演義者” 즉 “역사에 의거하여 그 뜻을 풀어서 쓴 것”에 대한 번역이 빠져있다. 어려운 문언으로 된 역사서를 좀 더 쉬운 반문반백(半文半白) 형식으로 허구적 가공을 가해 새롭게 서술한 연의소설이라는 문학장르에 대해 톰스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역사연의소설로서 《삼국지연의》의 문학적 우수성을 설명하려던 김성탄의 의도는 가려졌고, 그 대신 《삼국지》가 《자치통감》에 기록된 여타의 중국 역사 보다 훌륭한 점을 부각시키는 서술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삼국지》를 풀어서 쓴 사람”은 “그 전쟁을 쓴 역사가”로, “고금의 소설을 쓴 사람”은 “고대나 현대의 다른 모든 역사가”로 바뀌어 번역되었다.

그의 번역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하였다. 기본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의미중심의 번역을 했고, 간혹 인물의 특징과 상황을 한층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서술을 삽입하거나 본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각주를 활용해서 상세한 설명을 가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톰스 번역문을 중국 원

12) P. P. Thoms(trans. by), “The Death of the Celebrated Minister Tung-cho”, *The Asiatic Journal* vol.10, December, 1820, 525-6쪽.

문과 대조 검토해서 도출한 특징을 추가 서술의 삽입, 생략, 오역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추가 서술의 삽입

추가 서술의 구체적인 예를 모두 6개로 정리하여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① 동탁의 잔혹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톰스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서술을 첨가했다.

[원문] 卓留宴, 適北地招安降卒數百人到. 卓即命於座前, 或斷其手足, 或鑿其眼睛, 或割其舌, 或以大鍋煮之.¹³⁾ (동탁이 연회에 머물고 있는데, 때마침 북지(北地)에서 투항한 군사 수 백 명이 도착했다. 동탁은 즉시 자리 앞에서 명령하여 어떤 이는 수족을 잘랐고 어떤 이는 눈을 파냈으며 어떤 이는 혀를 잘랐고 어떤 이는 큰 솥에 삶았다.)

[톰스 번역] On one of these occasions, and whilst he and his guests were in the midst of their carouse, some hundreds of deserters, relying upon a proclamation in which he had promised a general pardon, came in from the northern provinces and yielded themselves up to the clemency of Tung-cho. Instantly he commanded them into his presence. Regardless of his word, he sentenced them upon the spot, some to have their hands and feet lopped off, others to have their eyes torn out, and others, still more miserable, to be cast alive into boiling cauldrons.¹⁴⁾ (그러던 중 한번은, 그와 손님들이 연회에서 한창 즐기고 있을 때, 사면을 약속했던 동탁의 발언을 믿고 몇 백 명의 탈영병이 북쪽 지방으로부터 와서 동탁의 관대함에 굴복했다. 즉시 그는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형을 선고하여 어떤

13) 羅貫中 撰, 앞의 책, 44쪽.

14)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527-8쪽.

사람은 손과 발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더 비참하게 산 채로 끊는 가마솥에 던져졌다.)

이상에서와 같이, 원문에서는 북지에서 온 투항군들을 잔혹하게 도륙하는 동탁의 반인륜적 통치자로서의 행동을 서술하는데 그쳤지만, 톰스의 번역문에서는 동탁이 북지의 군사들에게 사면해주겠다고 거짓말로 피어 투항하게 만들었다는 서술을 첨가함으로써 속임수까지 쓰는 비열한 면을 추가했다. 그리하여 번역문은 동탁의 야비하고 극악무도한 본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례② 왕윤이 여포를 설득하여 동탁 암살을 결심하게 만드는 대목에서 톰스는 여포의 내적 고뇌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술을 추가했다. 여포는 동탁에 대한 미움이 컸지만, 부자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는 것은 곧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격이 되어 윤리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왕윤에게 심적 고뇌를 털어놓았다.

[원문] 布曰“大丈夫生居天地間，豈能鬱鬱久居人下!” 允曰“以將軍之才，誠非董太師所可限制。” 布曰“吾欲殺此老賊，奈是父子之情，恐惹後人議論。”¹⁵⁾ (여포가 말했다. “대장부가 태어나 세상에 머물면서 어찌 우울하게 남 밑에 오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왕윤이 말했다. “장군의 재능은 실로 동태사가 속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포가 말했다. “저는 이 늙은 도적을 죽이고 싶지만, 부자의 정 때문에 후인들의 의론을 불러일으킬까봐 두렵습니다.”

[톰스 번역] “What”, continued Leu-poo, “shall any man dare to dishonour me and hope to live? By heaven I will slay the tyrant. What to me are the ties that bind father and son together, wronged and humiliated as I am? And yet, if I slew him, they might call me parricide! my memory might be handed down to posterity loaded with execrations.”¹⁶⁾ (“뭐라고요?” 여포가 계속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이 감히

15) 羅貫中 撰, 앞의 책, 50쪽.

나를 욕되게 하고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맹세코 저는 그 폭군을 죽일 것
입니다. 제가 부당하고 굴욕을 당했는데도,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묶는 끈
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지만 만일 제가 그를 죽이면 그들은 저를
살인마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제 평판은 저주로 가득 차 후세에 물려질
수도 있습니다.")

톰스의 번역을 보면, 원문의 밑줄 친 왕윤의 대사 부분 “장군의 재능은
실로 동태사가 속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가 생략되었고, 그 대신 “만
일 제가 그를 죽이면 그들은 저를 살인마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라는 서
술이 추가되었다. 톰스는 ‘살인마(parricide)’라는 단어를 이탤릭체로 강조
하여 표기했고, 이를 통해 비정한 살인마로 지탄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여
포의 심적 고뇌를 부각시켰다.

사례③ 동탁을 암살하기 직전 여포의 결연한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톰스는 아래와 같이 첨가했다.

[원문] 卓進至相府, 呂布入賀. 卓曰 “吾登九五, 汝當總督天下兵馬.” 布拜
謝, 就帳前歇宿.¹⁷⁾ (동탁이 승상부에 이르자 여포가 들어와 축하했다. 동탁
은 말했다.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너는 천하의 병마를 총괄 지휘해
야 한다.” 여포는 감사하다고 절하고 장막 앞에서 묵었다.

[톰스 번역] Amongst the foremost of those who paid their respects to
the minister, was Leu-poo. Tung-cho promised him that, on his accession
to the throne, he should be invested with the command of all the troops
in the empire. Leu-poo thanked him, but persisted notwithstanding in
the resolution which he had previously formed.¹⁸⁾ (승상에게 경의를 표한
사람들 중 맨 앞사람은 여포였다. 동탁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제국의 모
든 군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했다. 여포는 그에게 감사하

16)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The Asiatic Journal* vol.11, March, 1821,
233쪽.

17) 羅貫中 撰, 앞의 책, 51쪽.

18)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236쪽.

다고 했지만, 이전에 했던 결심을 끝까지 고수했다.)

위 번역에서 원문의 “장막 앞에서 묵었다”를 빼고 “이전에 했던 결심을 끝까지 고수했다”를 첨가함으로써 여포가 동탁이 제안한 귀에 솔깃한 약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암살할 마음을 끝까지 견지했음을 톰스는 강조했다.

사례④ 이각 일당이 여포를 무찌를 대책을 세운 뒤 여포와 한관승을 벌이는 장면으로 전환하는 대목에서도 추가적 서술이 삽입되었다. 여기서의 추가 서술은 사건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작용을 했다.

[원문] 衆用其計. 却說呂布勒兵到山下, 李傕引軍搦戰.¹⁹⁾ (무리들은 그 계획을 사용했다. 각설하고, 여포는 병사를 이끌고 산 아래에 당도했고, 이각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걸었다.)

[톰스 번역] This plan was highly approved of by his colleagues. The scheme succeeded. Leu-poo, intending an attack, led his troops to the foot of the mountain.²⁰⁾ (이 계획에 그의 동료들은 매우 찬성했다. 그 책략은 성공했다. 여포는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로 갔다.)

《삼국지연의》 원문에서는 “각설하고(却說)”를 사용하여 새로운 화제로 옮겨갔다. 사실 이 표현은 명청시기 백화소설에서 사용한 상투어로 송나라 때 설화기예에서 이야기꾼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사용했던 말에서 기원한다. 명청시기 역사연의소설은 설화기예의 한 종류인 강사(講史) 즉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꾼이 재미있게 허구적으로 각색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공연 양식에서 연원한 것이다. 그로 인해 역사연의소설은 공연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 羅貫中 撰, 앞의 책, 53-4쪽.

20)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240쪽.

고 문체상 이야기꾼이 사용한 화법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톰스는 이러한 중국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설하고”를 말끔히 빼버리고 “그 책략은 성공했다”라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여포와의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그 결말을 먼저 알려주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사례⑤ 직역만으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톰스는 추가적 서술을 삽입했다. 동탁이 살해당하기 직전, 성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사를 번역한 부분에서 톰스는 각주를 활용하여 추가적 설명을 가했다.

[원문] 歌曰 “千里草, 何青青! 十日上, 不得生!”²¹⁾ (천리초 어찌나 푸르던지! 십일 지나면 살 수 없어라!)

[톰스 번역] The verdant grass of a thousand le Fades ere it attains the age of ten days.²²⁾ (수천 개의 파릇파릇한 풀들이 열흘이 되기 전에 시들었다.)

사실 위 동요는 동탁의 죽음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천리초(千里草)”는 동(董)을 파자(破字)한 것이며 “십일상(十日上)”은 탁(卓)을 파자한 것으로, 동탁의 이름을 파자한 이 동요는 동탁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톰스는 중국인들이 쓰는 이러한 문자 유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천 개의 파릇파릇한 풀들이 열흘이 되기 전에 시들었다”라는 직역만으로는 도저히 원문의 함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각주를 달아서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했다. “이 구절은 동탁의 이름을 구성하는 글자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글자 동은 풀(grass), 천(thousand), 마일(mil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글자 탁은 하루 이상(above day)과 십(ten)

21) 羅貫中 撰, 앞의 책, 51쪽.

22)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236쪽.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즐기는 위트의 전형이다.”²³⁾ 그리고 동탁이 입궐하다가 어떤 도인(道人)이 “口”자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대목에서도 톱스는 “口”를 “mouth”라고 직역한 뒤 각주를 달아서 “口”자가 적힌 깃발에 함축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했다. “여포의 이름을 구성하는 2개의 글자 가운데, 첫 번째 글자는 입(mouth)을 세로로 중복해서 쓴 것이며, 두 번째 글자 포(布, cloth)는 깃발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 그 깃발은 승상에게 여포를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²⁴⁾

사례⑥ 중국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이해 가능한 문맥에서도 추가적인 서술을 삽입하였다. 동탁이 살해당하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으나 오로지 채옹(蔡邕)만은 슬퍼했다. 그래서 분노한 왕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이 때 태부(太傅) 마일제(馬日磾)가 나서서 채옹의 재능을 두둔하며 그를 살려두어 한(漢)나라 역사서 집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청했다. 하지만 왕윤은 사마천(司馬遷)의 사례를 들어 그를 죽이려는 명분으로 삼았다.

[원문] 允曰 “昔孝武不殺司馬遷，後使作史，遂致謗書流於後世。方今國運衰微，朝政錯亂，不可令佞臣執筆於幼主左右，使吾等蒙其訕議也。”²⁵⁾ (왕윤은 말했다. “옛날 효무제가 사마천을 죽이지 않고 이후에 그로 하여금 《사기》를 쓰게 하여 마침내 비방하는 글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운이 쇠미하여 조정이 혼란스러우니 간신으로 하여금 어린 군주 옆에서 집필하게 하여 우리를 비방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톱스 번역] “Heaou-woo,” answered Wang-yun, “spared the life of Sze-ma-tseën, and afterwards appointed him imperial historian. The consequence was, that Sze-ma-tseën, more mindful of his previous

23) 같은 글, 236쪽.

24) 같은 글, 236쪽.

25) 羅貫中 撰, 앞의 책, 52쪽.

enmity than of the clemency which had been extended to him, belied his age; and the characters of his contemporaries have descended to our times, not as they really were, but as distorted by his malignity. The evil passions of men have been put in motion by our recent convulsions. Shall we, at such a period, commit the pencil of the historian to a man whose royalty may be suspected? Shall we hire an enemy to vilify ourselves?”²⁶⁾ (왕윤은 대답했다. “효무제는 사마천의 목숨을 아껴서 이후에 그를 제국의 역사가로 임명했다. 그 결과 사마천은 그에게 베푼어진 관대함보다 이전의 원한을 더 염두에 두었고, 그의 시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실재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의 원한으로 인해 왜곡되어 우리 시대에 전해졌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열정은 최근의 동란으로 인해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충성심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역사가의 붓을 맡겨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적을 고용해야 할까요?”)

《사기》의 편찬자 사마천이 비방하는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해졌다는 왕윤의 대사를 사마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영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톰스는 설명적인 서술을 추가했다. 무제(武帝)가 궁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 뒤에도 사마천을 살려두었지만, 그는 오히려 원한을 품고 당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왜곡해서 썼다고 첨언함으로써 왕윤의 대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2. 생략

톰스는 생략 방식도 사용했는데 그 결과 장회소설의 체제와 문체상의 특징이 일괄적으로 지워졌다. 그는 삽입시와 8회가 끝나는 결말부분의 수장시(收場詩), 장회소설의 상투어 “다음 회를 들어보세요(且聽下文分解)”를 모두 생략했다. 특히 삽입시는 최후의 결과를 암시하거나 혹은 인물과 사

26)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238쪽.

건에 대한 논평을 가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생략했다. 예를 들면, 초선을 여포에게 주라는 이유(李儒)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탁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후세인들의 시를 인용하여 왕윤이 장차 미인계를 써서 손쉽게 동탁을 제거할 것이라는 암시를 했는데 톰스는 이 시를 번역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채옹을 죽인 왕윤을 비난하는 후세인들의 시 역시 생략되었다.

이 밖에 본문 내용의 번역에 있어서도 생략된 사례가 발견된다. 왕윤이 여포와 함께 동탁 암살을 모의할 때, 이숙(李肅)을 동탁에게 보내 헌제(獻帝)가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입궐하라는 분부를 내렸다고 전하게 했다. 이때 여포는 자신에게 정원(丁原)을 죽이고 동탁에게 의탁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숙이라고 말했는데, 톰스의 번역문에는 여포의 대사가 아래와 같이 생략되었다.

[원문] 允曰“善.” 請呂布共議. 布曰“昔日勸吾殺丁建陽, 亦此人也. 今若不去, 吾先斬之.” 使人密請肅至.²⁷⁾ (왕윤은 말했다. “좋습니다.” 여포를 불러와 함께 의논했다. 여포가 말했다. “옛날에 저에게 정건양(丁建陽)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만일 안가겠다면 제가 먼저 그를 베겠습니다.” 사람을 보내 비밀리에 이숙에게 오라고 했다.

[톰스 번역] Wang-yun exclaimed, “Excellent!” and immediately sent to Leu-poo, requesting his presence at the consultation. A similar message was also sent to Le-shuh.²⁸⁾ (왕윤은 소리치길, “훌륭해요!” 즉시 여포에게 사람을 보내 상의하러 와주길 요청했다. 비슷한 메시지를 이숙에게도 보냈다.)

이렇게 여포의 대사를 삭제한 결과 이숙과 여포간의 과거의 사적 관계

27) 羅貫中 撰, 앞의 책, 50쪽.

28)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The Asiatic Journal* vol.11, February, 1821, 234쪽.

는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아마도 이 대사가 사건 전개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군더더기라는 생각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주가 필요한 부분에서 각주가 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로 관직명인데 이를테면, “사도 왕윤(司徒王允)”을 “Wang-yun, the Tsze too”, “복사사 손서(僕射士孫瑞)”를 “Shun-suy, the Poo-shay-tsze”, “사례교위 황완(司隸校尉黃琬)”을 “Whang-wan, the Sze-le-kaou-nae”, “기도위 이숙(騎都尉李肅)”을 “Le-shuh, the Ke-too-nae”²⁹⁾ 등으로 음역만 하고 별도로 주석을 달지 않아 독자들이 해당 인물의 직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3. 오역

톰스의 번역에는 간혹 오역도 발견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3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① 동탁이 손견(孫堅)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숙적이 제거됨에 안도하는 대목에서, 톰스는 “황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원문을 오역했다.

[원문] 却說董卓在長安，聞孫堅已死，乃曰“吾除卻一心腹之患也!”³⁰⁾

(각설하고, 동탁은 장안에서 손견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하길, “나는 마음의 우환이 사라졌다!”)

[톰스 번역] At the death of Tszw-kéen, Tung-cho was residing at Chang-gan. When he heard of the late Emperor's decease, he said within himself, “Now will I turn a deaf ear to my conscience, and listen only to my ambition.”³¹⁾ (손견이 사망했을 때, 동탁은 장안에 머무르고

29) 같은 글, 234쪽.

30) 羅貫中 撰, 앞의 책, 43쪽.

31)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The Asiatic Journal* vol.10, December, 1820,

있었다. 황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혼잣말하길, “이제 나는 내 양심에 귀머거리가 되고 오직 내 야망만을 따를 것이다.”)

그의 원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동탁의 우환이 사라진 원인이 손견의 죽음이 아닌 황제의 죽음 때문이라고 잘못 전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례② “강산(江山)”을 수도 명칭으로 오인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원문] 重扶社稷, 再立江山.³²⁾ (사직을 중건하고, 강산을 다시 세우다.)

[톰스 번역] Keang-shan, the ancient and venerable capital of the empire, will again become the seat of government.³³⁾ (황제의 오래된 신성한 수도 강산은 다시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위는 왕윤이 초선에게 무너져가는 한 왕조를 바로세울 사명이 주어졌음을 설명한 대목으로, 원문의 “강산”은 한 왕조에 대한 은유였다. 그런데 톰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강산”을 “황제의 오래된 신성한 수도인 강산”으로 오역했다.

사례③ 여포를 향한 동탁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유가 절영지회(絶纓之會) 고사를 인용한 대목에서 톰스는 “절영(絶纓)”을 인명으로 번역하는 우를 범했다.

[원문] 昔楚莊王絕纓之會, 不究戲愛姬之蔣雄, 後爲秦兵所困, 得其死力相救.(옛날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절영의 연회 때 애첩을 희롱한 장웅(蔣雄)을 추궁하지 않았습시다. 이후에 진(秦)나라 병사에 의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사력을 다해 구해주었습니다.)

525쪽.

32) 羅貫中 撰, 앞의 책, 44쪽.

33)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The Asiatic Journal* vol.10, December, 1820, 530쪽.

[툽스 번역] When Chwang, the monarch of Tsoo, prudently granted an amnesty to his enemies, he never thought of calling Tsey-ling to account for the seduction of his favorite concubine: and well was he rewarded for his forbearance; for when he was afterwards surrounded by his own rebellious troops, his life was preserved by a desperate effort of this same Tsey-ling. Imitate his prudence.³⁴(초나라 군주 장이 적에게 신중하게 사면을 내렸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첩을 유혹한 것에 대해 절영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용에 대한 보상을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반란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의 목숨은 바로 이 절영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그의 신중함을 본받으십시오.)

본래 “절영(絶纒)”은 갓끈을 끊는다는 뜻이다. 춘추시기 초나라 장왕이 밤에 연회를 열었는데 촛불이 꺼져 깜깜해진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그의 애첩을 잡아당겨 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애첩은 재빨리 그 남자의 갓끈을 끊었고, 이를 증거로 삼아 장왕에게 범인을 색출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장왕은 오히려 모든 군신들에게 갓끈을 끊으라고 명령을 내려 범인을 일부러 찾아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톨스의 번역은 남의 실수에 관용을 베푼다는 절영지회 고사의 함축적 의미는 제대로 전달되었으나, “절영”을 장왕의 첩을 희롱한 남자의 이름으로 오인하는 우를 범했다.

IV. 나오며

19세기 초기 마카오에서 영국동인도회사 인쇄공으로 일하던 기간 동안 톨스가 번역한 동탁고사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삼국

34) P. P. Thoms(trans. by), 앞의 글, *The Asiatic Journal* vol.11, February, 1821, 112쪽.

의 역사를 영국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인 번역 평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삼국지연의》가 삼국 역사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서가 아닌 미학적 특징을 띤 문학 텍스트인 만큼 고유의 형식을 최대한 존중하여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톰스는 송나라 민간 설화에서 연원하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반문반백의 문체로 쓰인 역사연의소설의 대표작 《삼국지연의》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톰스는 그것을 역사서로 오인하여 원문의 내용 전달에만 역점을 두고 문체와 체제는 보존하지 않았다. 특히 추가적인 서술을 많이 삽입하고 생략 방식도 적절히 활용했는데 이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번역책략이었다. 이로 봤을 때, 톰스는 번역가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영국인들의 중국에 관한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번역가로서 톰스는 중국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자이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원문에 대한 충실정보보다는 영국인들의 독서 습관에 부합하는 번역텍스트를 만들어내어 널리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톰스의 번역은 비록 그것이 원전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 했지만, 번역가가 문화전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뚜렷한 번역목표 아래 그에 부합하는 번역책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자체의 내적 통일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초의 영역본으로서의 톰스의 번역은 《삼국지연의》의 유명한 에피소드의 하나인 동탁고사를 서구에 알려 영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羅貫中 撰, 毛宗崗 批, 饒彬 校訂, 《三國演義》, 臺北: 三民書局, 1997.
 王燕, 〈湯姆斯與《三國演義》的首次英譯〉, 《文學遺產》 3, 2017.

- 易永誼,〈野蠻的修辭: 作為譯者的漢學家湯姆斯〉,《中國比較文學》第103期, 2016.
- Peter Perring Thoms(trans. by), “The Death of the Celebrated Minister Tung-cho”, *The Asiatic Journal* vol.10 December, 1820.
- Peter Perring Thoms(trans. by), “The Death of the Celebrated Minister Tung-cho”, *The Asiatic Journal* vol.11 February–March, 1821.
- Peter Perring Thoms(trans. by), “Review of Books ;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The Asiatic Journal* vol.13 May, 1822.
- Peter Perring Thoms, “China : Its Early History, Literature, and Language; Mistranslation of Chinese Official Documents; Causes of the Present War”, *Westminster Review* vol.34 June–September, 1840.
- Peter Perring Thoms(trans. by), *Chinese Courtship*, Macao: East India Company's Press, 1824.
- Peter Perring Thoms, “Biography of Tsaou-Tsze-Këen”, *The Asiatic Journal* new series vol.3 September, 1830.
- K. C. Leung, “Chinese Courtship: The Huajian ji in English Translation”, *Chinoperl Papers* 20–22, 1997–1999.
- Patricia Sieber, “Location, Location, Location: Peter Perring Thoms(1790 ~1855), Cantonese Localism, and the Genesis of Literary Translation from the Chinese”, Lawrence Wangchi Wong and Bernhard Fuehrer eds, *Sinologists as Translators in the Seventeenth to Nineteenth Centuri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1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to the West, specially focusing on the translation by Peter Perring Thoms(1790~1855), the first English translation. From 1820 to 1821, Toms published “*The Death of the Celebrated Minister Tung-cho*” in serial form in December issue of Volume 10 and February and March issues of Volume 11 of *The Asiatic Journal*. This is the story of Dong-Zhuo described in chapter 8 and 9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This paper examines Toms's translation in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social cultural context in which he lived. In order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translated text, this paper intends to use a method of detailed cross-examination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ed text.

Toms didn't understan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s a novel but understood as a history, so focused only on translating the content of the original text, without preserving the literary writing style and form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In particular, a lot of additional descriptions were inserted and omissions were also used appropriately, which was a translation strategy to easily reach the English-speaking readership. Although Toms's translation was based on mis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original text, it can be evaluated as having its own internal unity. Because of the translator had a sense of duty as a cultural transmitter and effectively used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orrespond with clear translation purpose.

Key Words : 삼국지연의(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번역(translation),
영어(English), 피터 페링 톰스(Peter Perring Thoms), 19세기
(19th century), 번역 특징(translation characteristic)